

성인여성 저고리 패턴을 활용한 개선된 저고리 패턴설계연구

– 20대 여성용 저고리를 중심으로 –

김현주 · 장민정⁺*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A Study of *Jeogori* Design Pattern using the Pattern Analysis in the Books Entitled *Hanbok Construction* Focusing on the Women in 20's

Hyun-Ju Kim · Min-jung Cha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5. 6. 12. 접수; 2015. 9. 14. 수정; 2015. 9. 18. 채택)

Abstract

This study mainly analyzes that designing patterns of an adult women Jeogori that takes advantage of patterns from each textbooks and complements the disadvantages based on the analysis of data from the dress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materials. The modification of a size specification is needed for the standard body as an adjust of the length of Jogori between front and back, mediation for bust width between front and back, a movement for the based line of Sup and Godae. As a result, the suitable pattern according to the standard somatotype is as below. Jeogori Length of front is determined by the length of back which was measured from side neck point to bust point plus three centimeters, and give three and half centimeters more in front. This three and half centimeters is for the curved in front of your body due to the chest. Bust width of front and back have to show the differences of human body. Bust width of front is calculated as bust girth into quarters and add two centimeters. Bust width of back gives one centimeter behind the curve from the center line in order to reduce the floating phenomenon. So, the amount of center back line dart is one centimeter. Arm hole girth measures as dividing bust girth into four. Also, Goedae width has two methods to measure. First, divide bust girth into ten equal parts and subtract 0,5 centimeters from it. Second, measure neck girth and divide it by four. Sleeve length is equal to Hwajang minus bust width of front. Hand wrist calculates in using bust girth. Make bust girth into quarters and multiply three fifths. Side line measures as deducting from Jeogori length of back to Arm hole girth and multiply two thirds.

Key Words: Design(디자인), Hanbok(한복), Jeogori(저고리), Patterns(패턴)

I. 서론

한국복식은 주변 강대국들의 간섭과 침략 속

+Corresponding author: Min-Jung Chang
Tel. +82-2-920-7195, Fax. +82-2-920-2075
E-Mail: chang_mj@sungshin.ac.kr

에서도 외래복식과 고유복식의 이중구조를 유지해오며, 상고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상의하고(上衣下袴)의 기본 한국복식 양식을 지켜왔다(이경자, 1983). 오늘날 한국복식의 제작과정을 배우고 실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한복은 예복으로써 주로 착용되고 있으며 착용 시 불편함이나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자 저고리는 가장 보편적으로 착용되는 한복으로 저고리의 구성요소는 단순하며 소박한 미와 곡선과 직선을 이용한 배래, 도련, 썬 등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곡선의 미 등의 동양적 생활윤리가 내제되어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한국 고유의 민족성을 바탕으로 전통복식을 계승시키고 발전하며 맥을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정금주, 2012). 치수 표준화를 위한 체형 파악과 신체 측정치의 평균 산정을 연구한 선행연구(윤복선, 2009)에 따르면, 한복 저고리 제도를 위하여 측정하는 기본 치수 부위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총길이, 등길이, 저고리 길이, 화장 등이나 치수측정항목 및 방법·여유분량 등은 한복구성학 교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재마다 상이한 치수산정방법과 패턴 제시는 학생들 및 제작자들의 혼란을 야기하여 저고리 제작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원활한 한복 제작을 위하여 성인여성의 인체치수를 고려하고 세대 및 흐름을 반영한 신체치수 수정이 필요하며, 치수의 표준화가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한복구성학 교재 저고리 패턴의 구성상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저고리 원형패턴을 제시하는 연구원형 패턴의 개발과 합리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20대 여성들은 결혼 적령기로서 현재 혹은 미래에 한복을 입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자신의 체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저고리 패턴을 제작해봄으로써 착용감 개선 및 한복에 대한 인식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나아가 한국의복구성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출판된 한복구성학 교재 속 여자저고리 제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성인여성 저고리 패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며, 이를 토대로 성인여성의 체형과 디자인에 따른 저고리 제도법의 차이를 올바르게 익혀 전통복식의 착용 및 계승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선행연구(김현주, 2015)와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이즈 코리아의 6차 인체치수조사 표준 치수에서 제시한 치수측정항목과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저고리 치수항목과 산출방법을 분석·제시하였으며, 연구패턴 제도방법을 제시하고 실물 제작하고자 한다.

김현주(2015)의 연구에서는 방문자 수가 높은 인터넷 서점 10곳을 선정하여 대학 및 한복제작 교육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저고리 치수와 패턴, 제작과정 등 상세설명이 수록되어 있는 총 20권의 교재를 수집하였다. 랭키닷컴의 2014년 11월 둘째 주 주간 리포트에 따르면, 방문자 수가 높은 인터넷 서점으로는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도서,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간 순위 10위까지의 인터넷 서점 10곳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선정된 인터넷 서점 10곳을 바탕으로 대학 및 한복제작 교육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저고리 치수와 패턴, 제작과정 등 상세설명이 수록되어 있는 총 20권의 한복구성학 교재를 수집하였으며, '한복구성'을 키워드로 인기도가 높은 교재 순위를 바탕으로 한복구성학 교재 20권 중 12권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한복구성학 교재 12권에 제시되어 있는 성인여성 저고리 제도를 분석하고 제작해 본 후, 패턴별 구성상 특징을 비교·분석한 연구에서 교재가 출판된 시기와 저자의 성향 등에 따라 저고리 제도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재마다 제시된 저고리 제도에 대한 차이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제도별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저고리 패턴에 대한 교재별 제언과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저고리 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수항목설정과 측정방법 등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저고리 패턴설계의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를 근간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제작된 연구패턴은 한복 구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석·박사 졸업 이상의 전공자들이 착장평가를 진행하여 외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착장 평가지는 저고리 구성 항목 18항목을 선정하여, 부위별 착용 모습과 특징들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선행연구에서 제작된 교재패턴 저고리와 연구패턴 저고리는 착장평가 결과 수집된 자료들의 데이터 코딩 과정을 거쳐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여 본 연구자의 연구패턴 설계방법이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20대 여성으로 선택한 이유는 한복구성학 교재를 이용하여 배우거나 제작하는 연령층 대부분이 20대 대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복식 교육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결혼적령기로서 한복을 접하게 되는 연령층이 20대 여성이므로 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패턴 제시를 위하여 치수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치수 산정방법을 통일한다. 통일된 기준 치수와 산정방법을 통하여 연구패턴 제도를 위한 치수를 측정하고, 교재패턴 저고리 제도 및 제작, 착장평가에서 보인 문제점들을 보완한 연구패턴을 제안한다.

둘째, 제안된 연구패턴을 실물 제작하고, 교재패턴 저고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착장평가를 진행한다. 착장평가 결과 제시된 자료들은 한복구성학 교재패턴과 연구패턴간의 착장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 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여 종속적 t-test를 실시한다.

20대 성인여성의 저고리 패턴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치수측정방법과 산정방법의 표준화가 요구되며, 표준 성인여성의 체형을 분석하고 저고리 제작을 위한 치수항목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저고리를 제도·제작 하는 데 있어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고려해야 할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반영하여 착용만족도가 높고 외관이 아름다운 한복 저고리를 제작하고자 한다.

Ⅲ. 연구 결과

한복구성학 교재를 분석한 선행연구(김현주, 2015)를 바탕으로 한복구성학 교재별 치수측정 방법과 항목을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와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저고리들을 참고로 개선된 저고리 패턴을 개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인여성 저고리 연구패턴 치수 및 산정 방법

성인여성 저고리 연구패턴을 제작함에 앞서, 선행 연구들과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이즈 코리아의 6차 인체치수조사 표준 치수에서 제시한 치수측정항목과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치수를 산출하였다. 키 163cm, 가슴둘레 86cm, 화장80cm, 등길이 38.5cm, 목둘레 32.4cm, 옆목점에서 유두점까지의 치수가 28cm인 착장자의 저고리항목별 치수는 다음과 같다.

1) 뒷길이

저고리 뒷길이는 총장을 이용하거나 가슴둘레, 등길이를 통하여 산출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타나 있다. 총장을 이용할 경우, 수직적 길이를 재는 데 용이하지만 인체의 곡선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저고리 길이를 총장으로 산출하는 것보다는 가슴둘레와 등길이를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저고리 뒷길이는 인체의 뒷면으로 가슴이 있는 앞면에 비하여 굴곡이 심하지 않으므로 등길이를 측정하고 그 값에서 10~12cm를 제하여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10~12cm의 중간 값인 11cm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저고리 뒷길이는 27.5cm로 한다. 또한, 등길이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슴둘레를 4등분하고 6cm를 더하는 산정방법을 통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2) 앞길이

저고리 앞길이는 대부분 뒷길이에 앞치짐분량을 주어 계산하며, 대부분의 한복구성학 교재들은 앞치짐분량으로 3~4cm를 제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평균값인 3.5cm를 준다. 저고리

앞길이는 성인여성의 가슴 굴곡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가슴둘레를 이용하여 계산한 뒷길이에 앞치짐분량을 주는 방법 외에 옆목점에서부터 유두점까지의 길이에 여유분을 주는 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반영하여 체형별 가슴 위치나 크기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맞게 여유분을 다르게 하여 저고리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착장평가를 통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 여유분은 3cm이었으며, 저고리 길이를 짧게 하고 싶을 경우 1.5~2cm의 여유분을 주고, 저고리 길이를 길게 하고 싶을 경우 4cm의 여유분을 준다. 본 제도에서는 일반자인 저고리 길이를 산정하고자 하므로 3cm의 여유분량을 주어 옆목점에서 유두점까지의 길이가 28cm이므로 3cm의 여유분을 주어 31cm로 제도한다.

3) 품

문화체육부(1997)의 연구에 따르면, 완성된 한복에 대해 소비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부위는 치마길이가 38.2%로 가장 많았고, 저고리 뒤편이 32.4%, 저고리 앞품이 10.5%로, 약 43%의 수정요구가 저고리 품에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저고리 품의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한복구성학 교재들의 앞품과 뒤편 산출 방식은 대부분 같은 치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앞품이 올라가거나 뒤편이 뜨게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된다. 기존의 사용하고 있었던 저고리 패턴들은 대부분 앞품과 뒤편을 같게 하여 뒤편이 뜨는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앞품은 가슴크기와 위치로 인하여 품이 작아 싫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앞품과 뒤편은 여유분의 차이를 두어, 앞품은 전체적으로 품의 여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B/4+2\text{cm}$ 로 산정하여 23.5cm로 정하며, 뒤편은 $B/4+1\text{cm}$, 22.5cm로 한다. 등이 굽어있는 체형이거나 등살이 많을 경우, 1.5cm의 여유분을 주어 계산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저고리 패턴에서 뒤편의 여유분이 뜨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옆선을 길 중심 쪽으로 0.2~0.5cm이동하여 뒤편의 여유분을 조절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제작 시 뒤편의 들뜨는 현상이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뒷중심선에 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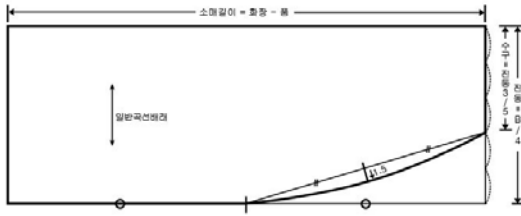
곡선을 주어 뒤편의 여유분을 줄이고 들뜨는 현상을 없애고자 한다.

4) 진동

진동은 가슴둘레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진동둘레를 통하여 측정한다. 착장평가 결과, 진동은 진동 치수나 산정방법이 같은 저고리일지라도 저고리 품과 소매길이, 소매형태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진동은 한복구성학 교재에서 제시한 가슴둘레를 4등분하는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21.5cm로 한다. 진동둘레를 직접 재어 측정할 경우, 치수측정방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치수를 재기 용이한 가슴둘레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5) 소매와 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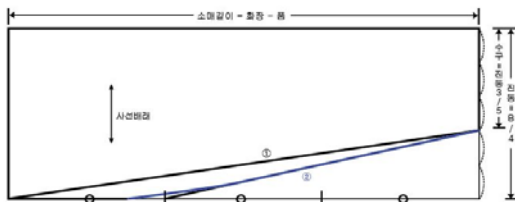
소매형태는 시대에 따라 특징과 형태가 다르고 개인의 취향이나 유행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매와 진동의 치수가 같아 소매점과 진동점을 직선으로 이은 직선배래와 일직선의 배래의 수구가 좁아지면서 사선의 형태를 띠게 된 몸에 꼭 맞는 사선배래, 사선배래의 진동과 수구가 좁아져 불편해진 움직임 보완하기 위하여 소매 중간 지점에 곡선을 주어 의복의 기능성을 더해준 일반 곡선배래, 소매통이 넓고 곡선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봉어배래를 제시하고자 한다. 4가지의 소매배래들 중 연구패턴의 소매형태는 곡선과 직선이 적절히 조화되며, 움직임과 활동성이 편리한 일반 곡선배래로 하고자 한다. 일반 곡선배래는 소매길이의 1/2지점까지는 직선으로 그리고, 1/2지점과 수구를 직선으로 연결한 후 그 선의 중간지점에서 1.5cm 내려와 가운데 부분이 가장 곡선이 되도록 제도한다. 직선배래는 소매 너비와 진동을 같게 하여 진동점과 수구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사선배래는 진동점에서 수구점까지 사선으로 제도한다. 봉어배래는 진동점에서 소매길이 1/2지점에서 1.5cm내린 지점까지 사선으로 연결한 후 0.5cm 굴리고, 1.5cm내린 지점에서 수구점까지 사선으로 연결 후 4등분하여 각각 2cm, 3cm, 2cm 내리어 곡선으로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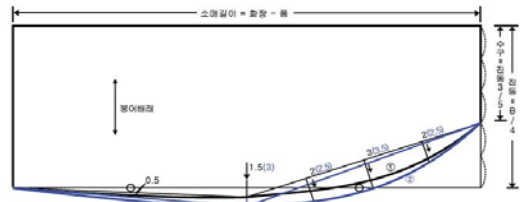
〈그림 5〉 소매형태 1
(일반 곡선배래)



〈그림 6〉 소매형태 2
(직선배래)



〈그림 7〉 소매형태 3
(사선배래)



〈그림 8〉 소매형태 4
(봉어배래)

〈그림 1~4〉는 위에 제시된 4가지 형태의 소매 패턴 제도법이다.

수구너비는 치수산정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교재에 가장 많이 제시된 진동의 3/5 값인 12.9cm를 사용한다. 옆선은 0.5cm 이상 팔 경우 오히려 뒤폭이 뜨는 현상이 심하게 보여 졌기 때문에 뒷길에서 진동을 제외한 치수의 2/3으로 계산하여 옆선길이를 4cm로 하며 파임이 없는 직선으로 제도한다.

6) 고대

고대는 교재에서 제시한 $B/10-0.5\text{cm}$ 와 가슴둘레(B)를 4등분 한 산정방법 중 후자의 경우 옆목점에서 뜨는 정도가 매우 심하였으므로 $B/10-0.5\text{cm}$ 를 사용하여 고대 값을 구한다. 고대 치수를 정할 때 목둘레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목 형태와 둘레를 고려하여 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치수를 올바르게 측정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7) 쇄

겉섷과 안섷은 대부분 고정치수로 제시되어

있으며, 산정방법에 따른 차이는 크게 보여 지지 않았다. 겉섷의 윗너비는 $B/10-2.5\text{cm}$ 로 착장평가를 진행한 결과, 겉섷의 크기가 크다는 평가를 얻었으므로 위 방식은 가슴둘레가 넓거나 겉섷너비를 넓게 할 경우의 산정방법으로 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가슴둘레일 경우, 겉섷의 너비를 줄여 $B/10-2.3\text{cm}$ 으로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 윗너비로 제시하고자 하는 고정 값과 위 산정방법을 통하여 측정된 치수가 6.3cm로 동일하므로 겉섷의 윗너비는 6.3cm로 한다. 아래너비는 6.6cm로 겉섷 위·아래의 차이가 0.5cm나도록 한다. 안섷 아래너비는 3.9cm로 겉섷 아래너비보다 2.7cm 작게 하며, 윗너비는 2.9cm로 아래너비와 1cm 차이 나게 제도한다. 겉섷 윗부분의 시작점은 진동 1/2지점에서 시작하고, 겉섷 끝을 버선코와 같이 뾰족하게 제도하면 전통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겉섷 코를 그린다. 안섷 윗부분은 진동 2/3지점에서 선을 시작하며, 안섷이 겉섷 밖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섷 코 부분에서 1cm 올린 부분을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연결하여 제도한다.

〈표 1〉 연구패턴 저고리 치수 및 산정방법

(단위: cm)

항목		산정방법		치수	
저고리 길이	앞길이	뒷길이+3.5(앞치검분)		31	
		옆목점~유두점 길이+3			
	뒷길이	등길이-10~12		27.5	
		B/4+6			
폼	앞폼	B/4+2		23.5	
	뒤폼	B/4+1		22.5	
	진동	B/4		21.5	
	길이	화장(젠 치수+2)-저고리앞폼		56.5	
소매	배래	직선	진동점과 수구점을 직선으로 연결 (소매와 진동이 동일)		
		사선	진동점에서 수구점까지 사선으로 연결		
		일반	소매길이 1/2점까지 직선, 수구점까지는 사선으로 연결한 후 사선의 1/2지점에서 1.5cm 내려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		
		붕어	진동점에서 소매길이 1/2지점에서 1.5cm내린 지점까지 사선으로 연결한 후 0.5cm 굴림, 1.5cm내린 지점에서 수구점까지 사선으로 연결 후 4등분하여 각각 2cm, 3cm, 2cm 내리어 곡선으로 연결		
	수구	B/4x3/5		12.9	
옆선		(뒷길이-진동)x2/3		4	
고대		B/10-0.5		8.1	
		목둘레x1/4			
췌	겉췌	위	고정너비 or B/10-2,3		6.3
		아래	겉췌 너비+0.5		6.6
	안췌	위	안췌 아래너비-1		2.9
		아래	겉췌 아래너비-2,7		3.9
깃	너비	원하는 너비		4.3	
	길이	겉깃(B/4)+고대+ 안깃(겉깃길이+깃너비+2)		65.5	
		진동+고대+진동+6		65.2	
고름	너비	원하는 너비		5.5	
	길이	긴	원하는 길이		105
		짧은	원하는 길이		95
동정		깃너비x2/5		1.72	

8) 깃과 고름

현재 깃너비와 길이는 매우 다양하나, 너비가 너무 넓을 경우 목의 움직임이 불편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깃너비를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 구성학 교재 저고리 깃의 평균값을 참고하여 깃너비는 4.3cm로, 겉깃길이는 가슴둘레를 4등분한 치수, 안깃길이는 겉깃길이에 깃너비와 여유분 2cm를 더하고 고대너비를 합친 65.5cm로 한다. 이 값은 진동을 이용하여 깃길이를 산출(진

동×2+고대+여유분6cm)한 값과 비슷하다.

고름은 일반적인 고름형태와 길이가 긴 고름, 길이가 짧고 너비가 좁은 고름의 3가지 종류 중 객관적인 기준에서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인 고름형태로 하여 너비 5.5cm로 제도한다. 길이는 긴 고름이 105cm, 짧은 고름은 95cm이며, 동정은 깃너비의 2/5값인 1.72cm로 패턴을 제시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연구패턴 제도

1) 뒷길과 소매

뒷길은 뒤폭(B/4+1cm)을 가로로 그리고, 뒷길이를 세로로 하여 직사각형을 그린다. 고대점(B/10-0.5cm)을 표시한 후 저고리 길이에서 1cm 내려 곡선으로 그리고, 진동선(B/4)을 표시한다. 뒷길이에서 진동선을 제외한 나머지의 2/3을 옆선으로 정하고, 뒷중심선에서 1cm 나가 저고리 길이에서 1cm내린 점으로부터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굴러준다. 뒷도련은 뒷중심선에서 1cm 나간 점과 옆선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3등분하고 2/3지점까지 0.2cm 내려 곡선으로 제도한다.

소매는 화장에서 뒤폭을 제외한 길이를 가로로, 진동길이를 세로로 하여 직사각형을 그린다. 수구는 진동의 3/5이며, 4가지 배래 형태에 따른 제도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곡선배래는 소매길이를 이등분 한 후 중간지점에서 수구점까지 직선으로 연결하고 직선 중간지점에서 1.5cm 내려간 부분이 가장 곡선이 되도록 그린다. 직선배래는 진동점과 수구점이 일직선으로 그려지는 형태로 소매를 광수로 제도하고 싶을 때에는 수구점을 진동(B/4)과 같이 하여 직선으로 연결하거나, 소매통이 너무 넓을 경우, 진동을 1~2cm 줄여 직선으로 연결한다. 사선배래는 진동점에서 수구점까지 곡선 없이 사선으로 연결하여 제도하거나, 소매길이를 3등분하여 진동점에서 1/3지점까지는 직선으로, 1/3지점부터 수구점까지는 사선으로 연결하여 사선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다. 봉어배래는 진동점에서 소매길이를 이등분 한 후 1.5cm 내린 점까지 사선으로 그리고 약 0.5cm정도 내려 곡선으로 연결한다. 이등분한 점으로부터 수구점까지 연결 한 후, 이를 다시 4등분하여 각각 2cm, 3cm, 2cm 내려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배래 곡선을 더 주고 싶다면 소매길이를 이등분하여 3cm를 내리고, 이 점에서 수구점까지 4등분하여 각각 2.5cm, 3.5cm, 3cm 내려 제도한다.

2) 앞길

앞길의 오른쪽은 앞폭(B/4+2cm)을 가로로, 앞길이(뒷길이+3.5cm)를 세로로 하여 길 원형제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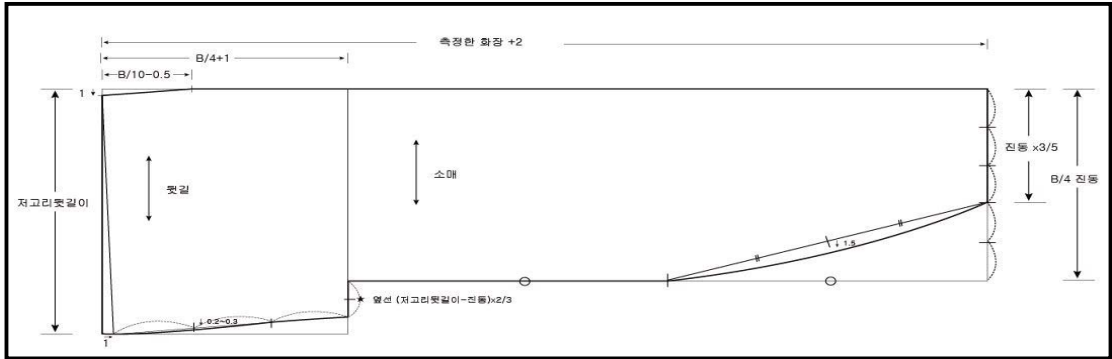
위한 기준선으로 삼는다. 고대점(B/10-0.5cm)과 진동선(B/4)을 각각 표시하고, 진동을 3등분하여 2/3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앞 중심선까지 연장하여 안섷 윗너비선으로 정한다. 진동에서 옆선 길이만큼 내려오고, 앞 중심선에서 3cm나간 지점과 옆선을 직선으로 그어 3등분하여 곡선을 준다. 안섷의 아래너비는 겹섷너비에서 2.7cm를 제외한 길이로 앞 중심선에서 연장하고, 윗너비는 안섷 아래너비에서 1cm를 제외한 값으로 앞 중심선에서부터 연장하여 그린다. 안섷 윗너비와 아래너비를 직선으로 연결한 후, 밑에서 1cm 올라간 지점과 앞도련을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연결한다.

앞길 왼쪽은 앞길 오른쪽과 길 원형제도가 동일하며, 진동을 이등분하여 이를 겹섷 윗너비선으로 정한다. 겹섷선은 고대를 이등분하여 진동 쪽으로 0.5cm 나간 점과 고대 이등분한 선을 수직으로 내린 후 2/3되는 지점을 연결한다. 이는 앞폭을 늘려 저고리를 더 편안하게 입기 위해서이다. 겹섷선과 윗너비선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겹섷 윗너비만큼 나가 표시하고, 겹섷 아래너비는 윗너비보다 0.5cm 나가 겹섷선에 표시하여 사선으로 연결한다. 앞 도련선은 옆선에서 앞 중심선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며, 이를 3등분하여 곡선을 주었고, 앞 중심선에서 0.5cm 내린 지점을 가장 곡선으로 하여, 겹섷의 코 부분은 뽀족하게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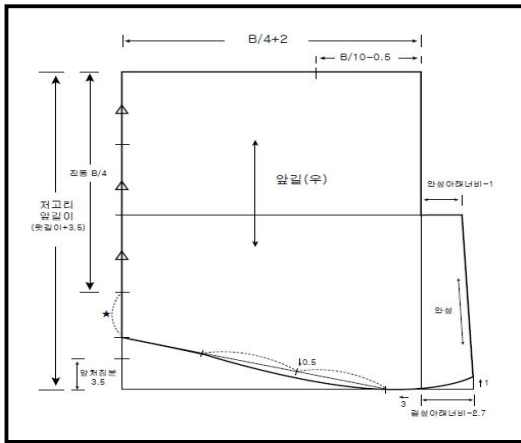
3) 깃과 고름

깃은 길이를 가로로, 너비를 세로로 하여 직사각형을 그린다. 깃 길이는 겹깃(B/4)과 고대((B/10-0.5cm)x2), 안깃(겹깃길이+깃 너비+2cm)으로 구성한다. 안깃은 안깃길이의 3등분점과 깃 너비의 4등분점을 연결하여 그리며, 깃머리는 0.3cm 연장해서 연결하여 깃이 몸판에 닿렸을 때 깃이 살짝 올라가는 것을 방지한다(그림 20). 고름 제도 역시 길이를 가로로, 너비를 세로로 하며 골선으로 그린다. 고름 입구 부분은 고름너비의 2/3지점과 15cm 떨어진 부분을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하여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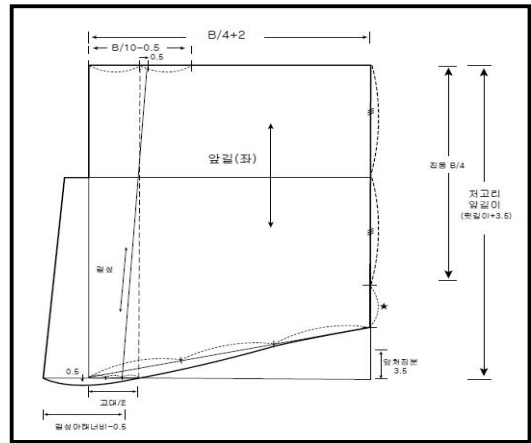
식서방향은 앞길과 뒷길은 저고리 길이방향이며, 안섷은 바깥쪽방향, 겹섷은 겹섷선방향, 소매는 진동방향, 깃과 고름은 길이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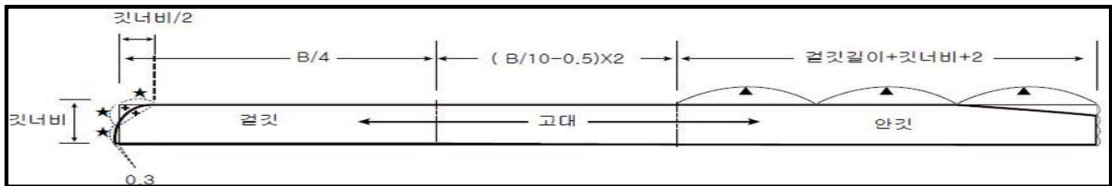
〈그림 5〉 연구 패턴 1 - 뒷길과 소매



〈그림 6〉 연구 패턴 2 - 앞길 오른쪽



〈그림 7〉 연구 패턴 3 - 앞길 왼쪽



〈그림 8〉 연구 패턴 4 - 깃



〈그림 9〉 연구 패턴 5 - 고름

〈표 2〉 연구패턴 저고리 사진

		저고리 사진	
		앞	뒤
전체			
품			
겉섶		안섶	

(출처: 연구자촬영(2014))

위의 설명을 바탕으로 제작된 성인여성 저고리 연구패턴은 〈그림 5-9〉와 같다.

3. 연구패턴에 의한 저고리 실물제작

선행연구의 인체측량방법 및 착장평가 결과 분석 등을 참고하여 성인여성 저고리 연구패턴의 세부치수 및 산정방법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패턴을 제도하고 실물 제작하였다. 연구패턴 저고리 실물 제작은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었고 소재는 봄·가을 여자 저고리 원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국사로 하였다. 여유 시점은 모두 1cm로 통일하였고, 저고리 수정에 편리하도록 겹 바느질로 제작하였다. 착장평가를 통하여 패턴의 적합성과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길과 소매는 아이보리색 국사, 깃과 고름은 청색 국사로 제작하였다.

연구패턴을 바탕으로 제작된 저고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뒷길이와 앞길이의 차이는 3.5cm이며, 뒷도련은 일직선에 가깝게 제도하면서 0.2~0.3cm의 곡선을 준다. 옆선은 중심 쪽으로 깎지 않아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뒤품의 여유분을 줄이고 뒷중심에서 1cm씩 곡선을 주어 뒤품이 뜨는 현상을 해소한다. 소매 배래는 중심까지는 일직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곡선으로 연결하여 소매통이 넓어지지 않도록 한다. 앞길 오른쪽 도련선은 앞 중심선에서 소매 쪽으로 3cm 들어와 시작하여 도련선의 경사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안섶 코는 1cm를 올려 제도하여 겉섶과 안섶이 겹쳐졌을 때 안섶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겉섶 코는 뽕족하게 제도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을 준다. 앞품은 겉섶선을 고대 중심에서 0.5cm 소매 쪽으로 수정하여 앞품의 여유분을 더 주었다. 깃은 깃머리가 뜨지 않도록 깃머리 부분에서 0.3cm 밖으로 연결하여 제작하며, 안깃이 빠지지 않도록 길이를 수정한다. 동정은 깃 너비의 2/5로 하고, 깃 너비는 4.3cm, 고름너비

〈표 3〉 저고리 착장평가 항목

분류	평가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외관	체형과 저고리의 전체적 모양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앞모습	앞품	앞품의 여유가 적당하다	① + -	② + -	③	④	⑤
	앞길이	앞길이가 가슴을 덮는 상태가 적당하다	① + -	② + -	③	④	⑤
	앞도련	앞도련이 뜨지 않고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뒷모습	뒤품	뒤품의 여유가 적당하다	① + -	② + -	③	④	⑤
	뒷길이	전체 옷 길이에 대한 비율과 여유분이 적당하다	① + -	② + -	③	④	⑤
	뒷도련	뒷도련이 뜨지 않고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옆모습	옆선길이	옆선과 조끼허리와와의 관계가 자연스러우며 옆선길이가 적당하다	① + -	② + -	③	④	⑤
소매	진동	진동부위의 당김이나 구김이 적당하다	① + -	② + -	③	④	⑤
	소매길이	손목점까지의 길이가 적당하다	① + -	② + -	③	④	⑤
	배래모양	소매통이 적당하며 배래모양의 미적 감각이 좋다	① + -	② + -	③	④	⑤
	수구너비	수구너비가 적당하다	① + -	② + -	③	④	⑤
고대	고대너비	뒷목점과 옆목점 부위의 뜨는 정도가 적당하다	① + -	② + -	③	④	⑤
섶	겉섶선·너비	겉섶의 위치가 앞품에 벌어짐이 없는 상태로 너비가 적당하다	① + -	② + -	③	④	⑤
	안섶선·너비	안섶이 적당하다	① + -	② + -	③	④	⑤
깃	깃 형태	깃이 목을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다	① + -	② + -	③	④	⑤
	깃 너비·길이	깃의 너비와 파임이 적당하다	① + -	② + -	③	④	⑤
고름	고름너비·길이	고름의 너비와 파임이 적당하다	① + -	② + -	③	④	⑤

는 5.5cm로 하여 저고리가 완성되었을 때 고름이나 깃이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거나 좁아 보이지 않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인여성 저고리 연구패턴을 바탕으로 제작된 저고리의 특징은 위와 같으며, 실제모습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4. 연구패턴 저고리 착장평가

연구패턴 저고리 착장자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이즈코리아의 6차 인체치수조사 표준 치수에 부합하는 25세 성인 여성 착장자를 선별하였으며, 착장자의 신체치수는 키 163cm, 가슴둘레 86cm, 허리둘레 70cm, 엉덩이둘레 91cm, 화장 78cm, 등길이 38.5cm, 총장 142cm, 목둘레 32.4cm이다. 화장의 경우 고정치수를 제시한 교재들을 제외하고 실제 치수를 이용한 교재들에서 대부분 실제 측정된 치수에 1.5~2cm를 더하여 계산하였으

〈표 4〉 연구패턴 저고리 착장사진

		저고리 착장사진	
		앞	뒤
전 체			
품			
소 매			

(출처: 연구자촬영(2014))

므로 본 연구에서도 2cm를 추가하여 80cm를 화
장 기본 치수로 하여 제작하였다.

착장평가는 2014년 11월 14일 진행되었으며,
착장평가에 사용된 속옷과 속치마·착장치마는
착장평가를 위해 저고리와 함께 착용한 치마는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일반적인 패턴과 제
작 방법에 준하여 만들었으며, 소재는 옥사로 하
여 제작하였다. 외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
인 평가를 위하여 한복 구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
을 갖춘 석·박사 졸업 이상의 전공자들이 평가
에 참여하였다. 착장평가는 저고리 구성 항목 18
항목을 선정하여, 부위별 착용모습과 특징들을 5
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착장 평가지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제작된 연구패턴 저
고리의 실제 착장모습은 〈표 4〉와 같다.

연구패턴 저고리의 착장평가 결과 수집된 자
료는 데이터 코딩의 과정을 거쳐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패턴분류는
한복구성학 교재패턴과 연구패턴으로 분류하였

으며, 한복구성학 교재패턴은 선행연구(김현주,
2015)에서 제시한 한복구성학 교재 저고리 12개
의 평균값을 정리하여 참고하였다. 동일한 착장
자의 저고리 착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교재패
턴과 연구패턴간의 착장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종속적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5〉는 패턴유형을 독립변수로 한 t-test 결
과이며, 총 18항목 중 8항목에서 유의차가 인정
되었다. t-test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패턴의 전체 평균은 3.50이며, 교재패턴
전체 평균은 2.71로 전체적으로 연구패턴이 교재
패턴보다 더 좋은 착장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외관과 앞길이, 뒤품, 뒷길이, 고대너
비, 안설희선·너비, 깃 형태, 깃 너비·길이항목에
서 유의수준 0.01과 0.0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패턴이 교재패턴보다 20대 성인여성에게
보다 적합한 저고리 패턴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패턴의 전체외관은 평균 4.25로 평균 2.83
인 교재패턴보다 높은 평가를 얻었으며, 유의수

〈표 5〉 연구패턴 저고리 착장평가 결과

구분	항목	교재 패턴	연구 패턴	t-value
		M(S,D)	M(S,D)	
전체외관	1. 전체외관	2.83(0.31)	4.25(0.50)	-10.75**
앞모습	2. 앞품	2.81(0.35)	3.75(0.50)	-2.40
	3. 앞길이	2.73(0.26)	3.75(0.50)	-3.55*
	4. 앞도련	3.13(0.34)	3.50(0.58)	-0.85
뒷모습	5. 뒤품	2.13(0.43)	3.75(0.50)	-3.52*
	6. 뒷길이	2.54(0.25)	3.50(0.58)	-5.58*
	7. 뒷도련	2.54(0.44)	3.50(0.58)	-2.06
옆모습	8. 옆선길이	2.91(0.20)	3.00(0.00)	-0.82
소매	9. 진동	2.83(0.41)	2.75(0.50)	0.26
	10. 소매길이	3.04(0.37)	3.75(1.26)	-.969
	11. 배래모양	2.38(0.45)	4.00(0.82)	-2.67
	12. 수구너비	3.29(0.34)	4.25(0.96)	-2.16
고대	13. 고대너비	2.50(0.30)	3.00(0.00)	-3.37*
섷	14. 겹섷선·너비	2.60(0.29)	3.50(0.58)	-3.12
	15. 안섷선·너비	2.46(0.14)	3.50(0.58)	-4.81*
깃	16. 깃형태	3.00(0.29)	3.75(0.50)	-6.36**
	17. 깃너비·길이	2.65(0.16)	3.00(0.00)	-4.50*
고름	18. 고름너비·길이	2.35(0.52)	2.50(0.58)	-0.30
전체 평균		2.71(0.17)	3.50(0.21)	-8.39**

*p<.05, **p<.01, ***p<.001

준 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앞길이와 뒷길이 항목에서는 각각 평균 3.75, 3.50으로 평균 2.73, 2.54이었던 교재패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연구패턴 제작 시 앞길이 산정방법에서 옆목점에서부터 유두점까지의 길이를 이용한 점과 뒷길이 산정방법에서는 등길이를 이용하여 치수를 산출한 방법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재패턴 착장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뒤품항목(M=2.13)은 연구패턴(M=3.75)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으며, 이를 통하여 앞품과 뒤품 산정방법에서 여유분의 차이를 달리하여 뒤품 여유분량을 줄인 것이 적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고대 항목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가슴둘레를 이용한 방법과 목둘레를 측정하여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착장평가 결과, 고대를 가슴둘레 하나의 산정방법으로 산출하는 것보다 목둘레를 고려하여 고대너비를

산출한 연구패턴(M=3.00)이 교재패턴(M=2.50)보다 유의수준 0.05의 유의한 차이로 높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깃 항목은 깃 형태와 너비·길이 두 가지 항목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교재패턴의 깃 너비와 길이는 4.0~6.0cm와 64.2~69.9cm로 다양하게 제작되었던 반면, 연구패턴은 깃 너비 4.3cm, 길이 65.2cm로 교재패턴 저고리들의 착장평가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저고리들의 깃의 평균값을 참고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깃 항목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패턴은 기존 한복구성학 교재패턴들보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향상된 평가를 받았으며, 교재패턴들의 장·단점을 고려한 패턴의 수정 및 보완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복구성학 교재 저고리 패턴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착용만족도가 높고 외관이 아름다운 성인여성 저고리 패턴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0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표준체형에 해당하는 착용자를 선정하였고, 한복 구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공자들이 착용평가를 진행하였다. 착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복구성학 교재 저고리 패턴들의 장점을 반영하고 단점을 보완·수정하여 보다 적절한 성인여성 저고리 패턴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저고리 구성과 제작방법에 관련된 다양한 한복구성학 교재들이 출판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저고리 치수항목과 측정방법, 치수산정방법과 패턴 도식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비슷하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교재마다 제시된 저고리 제도에 대한 차이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제도별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저고리 연구패턴을 수정·보완하여 제작·착장해본 결과, 성인여성의 부위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바탕으로 한 저고리 패턴수정은 제작된 저고리와 착용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의 표준 체형에 국한된 표준 저고리 패턴을 제시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므로 표준 체형뿐만 아니라 체형별 저고리 패턴에 대한 재정립과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료 분석과 제작과정·평가에 있어서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착용평가를 위하여 저고리와 함께 착용된 치마는 한복구성학 교재에 제시된 일반적인 패턴과 제작방법에 준하여 만들었으나, 치마의 형태나 착용위치로 인한 저고리 외관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착용자와 평가자가 한정적이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본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교재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산업적 측면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20대 성인여성의 저고리로 제한되어 연

령별·항목별·체형별 응용패턴과 응용패턴 설계 기준을 성립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한국복식을 전공하거나 교육제작하는 다양한 집단의 원활한 저고리 제작 및 응용설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저고리 원형패턴 설계를 위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치수항목 설정과 측정방법, 치수 산정방법의 통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자는 20대 성인여성 저고리 패턴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응용패턴들의 통일화 및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한국복식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국복식 품목별 패턴 표준화 및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한국복식을 제작하는 학생들 및 제작자들의 패턴 제도 및 응용·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경희, 최정옥. (2009). 착용감 개선을 위한 여자 저고리 패턴개발: 20,30대를 중심으로. *복식*, 5(1), 94-105.
- 권영숙. (1986). *우리나라 여자저고리 원형설계에 관한 실험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휘정. (2013). *전통한복구성법의 해체와 재구성을 도입한 예복 디자인개발*.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희. (2002). *JAVA를 이용한 조선시대 여자저고리 자동 제도법 개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옥. (2008). 동화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이용한 어린이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 *한국의상디자인 학회지*, 1(2), 70-71.
- 김현주. (2015). *성인여성 저고리의 패턴 분석 및 설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윤자. (1994). *여성 상반신의 측면 형태에 따른 체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경옥. (2012). 초등학교 여자 아동의 신체 성장에 따른 한복 리폼 디자인 개발. *한국의상디자인 학회지*, 14(4), 89-98.
- 문화체육부. (1997). *한복의 표준치수 설정과 패턴 표준화를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안현숙. (2002). 생활한복 현황 및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4(2), 85-87.
- 엄란이. (2014). 3차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한복 저고리 패턴 개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양노. (2008). 체형별 저고리 패턴 제작을 위한 사이즈 스펙연구. *한복문화*, 11(1), 163-170.
- 윤복선. (2009). 특이체형을 위한 저고리 패턴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자. (1983). *한국복식사론*. 서울: 일지사.
- 이병화. (2010). 여성의 기성한복 패턴개발을 위한 사이즈 표준화 연구: 한복 구매고객을 중심으로. *아시아민족조형학보*, 8(1), 63-77.
- 이영혜. (2004). 성인여자 저고리 패턴에 대한 고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금주. (2012). 여자 저고리 형태변화와 제작에 관한 연구: 1910년부터 2010년까지.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임. (1994). 저고리 원형제도의 비교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1), 211-227.
- 한승희. (1999). 노년 여성 숙인체형의 저고리 원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